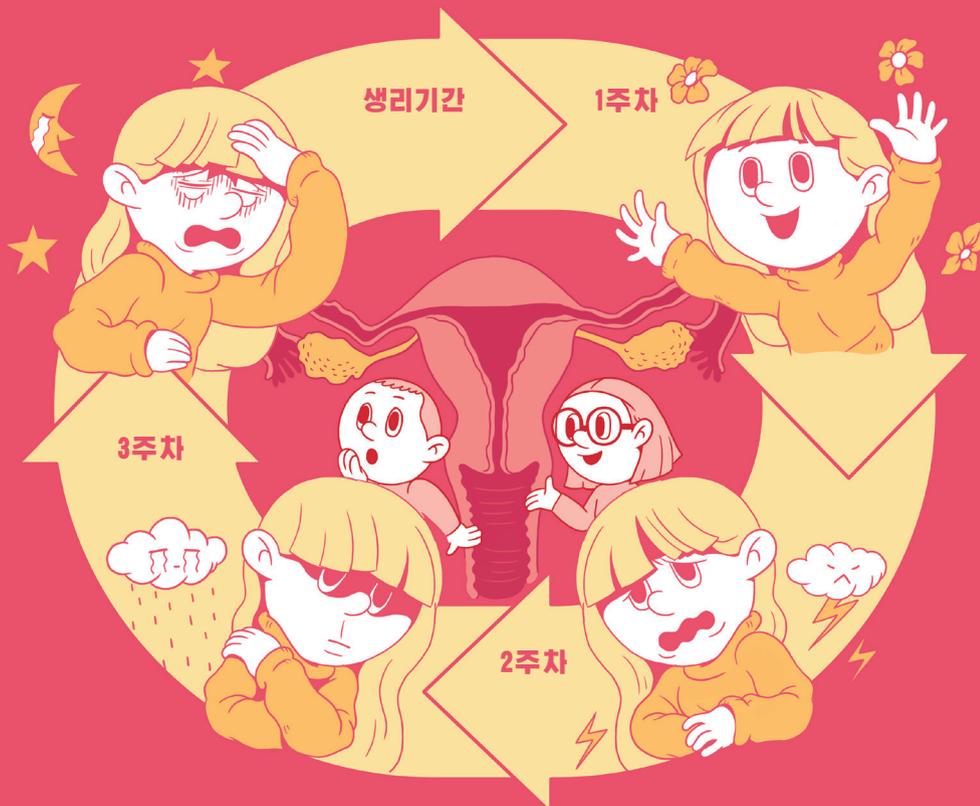


생리, 차별이 아니라 차이

글_ 서상희 이모는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는 데 필요한 일을 하려고 공부하고 있어.

그림_ 소경섭 삼촌



10월 11일은 UN(국제연합)에서 정한 '세계 소녀의 날'이었어. 이날은 사람들이 소녀와 젊은 여성의 권리에 더 많이 관심 갖고, 이들이 받는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뜻에서 만들어졌어. 그런

데 왜 '소년의 날'은 없지? 나라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사회에서나 '나이 어린 여자'는 '나이 어린 남자' 보다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차별받기 쉬워서 그래. 아직도 세계의 많은 나

라에서 나이 어린 여자가 생리를 시작하면 그 기간은 학교에 못 가기도 하고, 심지어 아예 처음부터 여자는 학교에 보내지 않기도 해. 여자라서 글을 읽고 쓰는 등의 교육을 안 하는 거지.

한국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에서도 나이 어린 여자는 차별받고 있어. 예를 들어, 여자는 이래야 하고 남자는 저래야 한다는 이야기, 들어봤지? '여자가 일찍 다녀야지!'와 같은 말도 흔하고. 사실, 사회가 위험해서 걱정하는 어른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 해결책은 안전한 사회를 함께 만드는 것이어야지, 어린 여자들의 자유와 경험을 제한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나이 어린 여자는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는 차별이라고 할 수 있어. '여자니까 엄마 일을 도와야지' 같은 말 역시 그렇고. 여성과 남성은 다르지 않나? 물론, 차이는 있어. 하지만 그게 차별해도 되는 이유는 아니야. 차이가 있다면 차별이 아니라 서로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

앞서 나오기도 했으니, 이번엔 여자와 남자의 차이 중 하나인 생리 이야기를 해 보자. 여성의 몸에는 자궁과 난소가 있어. 여성은 난소 안에 미성숙한 난자 400~500개를 가지고 태어나지. 나이를 먹을수록 키도 크고, 몸무게도 늘고 자연스럽게 자궁과 난소도 성장해서 '사춘기'라고 불리는 시기가 되면 생리를 해. 조금 자세히 말해볼게. 난소는 성숙한 난자를 자궁으로 내보내. 이 난자가 수정되지 않으면 자궁 속 막이 허물어지면서 몸 밖으로 혈액과 함께 흘러나오는데, 이 현상이 생리야.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주기로 일어

나서 월경이라고도 하지. 자궁으로 나온 성숙한 난자가 남성의 정자를 만나 수정이 되고, 자궁벽에 자리를 잡으면 임신, 즉 아기를 가지게 되는 거야. 임신하면 생리를 하지 않지. 생리는 여성에게 중요한 건강 신호이기도 해. 생리 주기가 정상 범주를 벗어나 불규칙하다면, 뭔가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주변에 믿음만한 어른과 상담을 한 뒤에 병원에 가는 게 좋아.

생리와 생리통, 생리 주기를 이해한다면, 생리하는 여성이 존중받아야 하는 이유를 아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 생리 기간은 1주일 정도 돼. 생리가 끝난 뒤 1주차 때는 대체로 몸이 평화롭고 행복해. 2주차 때는 난소에서 난자가 배란이 되면서 배를 쿡쿡 찌르는 듯한 배란통을 겪는 이들이 있는데, 이모도 그래. 3주차 때는 호르몬의 변화로 우울해지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해. 그리고 4주차 때는 다시 생리가 시작되는 거지. 생리하는 기간엔 피곤하고, 아랫배도 매우 아프고, 잠을 잘 못 자기도 해. 이러한 생물학적 차이가 사회적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학교에 못 가는 일도 당연히 없어야 하고. 이건 여성의 권리라는 걸 우리 스스로 알고, 국가와 사회도 그 역할을 해야 할 거야. 